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기준 강화 조치 2년 후로 연기

□ 일본 금융청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했던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후로 연기하기로 최종 확정함.

- 금융청은 보험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솔벤시 마진(solvency margin) 비율*의 산출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으나,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201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함.

* 솔벤시 마진(solvency margin) 비율 :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준비금 등의 지불여력비율을 말하며,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.

- 따라서 EU처럼 주가 및 채권 가격 하락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히 측정하고자 하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분석됨.

□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회사들의 경영 불안 야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.

- 금융청은 최근 엔고 현상 및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손실이 확대되어 예정대로 솔벤시 마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- 그러나 이번 조치가 최근 실시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존재함.

(요미우리신문 11/13,
lify 홈페이지 11/13)
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11/13)